

## 최근 폐암 수술 동향 및 관련 인구 사회학적 요인<sup>1)</sup>

### 1. 연구배경

- 폐암은 한국과 세계에서 암 사망의 주요 원인임
  - ▶ 2012년 전 세계적으로 182만 건의 폐암 진단(전체 암 발생 건수의 12.9%)과 160만 건 사망이 발생하였고, 한국은 22,118건의 폐암 진단과 10만 명당 43.9건의 사망이 발생함
- 폐암의 외과적 절제술은 초기 암 단계의 치료법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 신규 폐암 환자의 22%만이 국소화된 질환임
- 인구학적 구성 및 암 예방 정책 등 관련 요인들이 암 발생률 및 치료에 영향을 줌
  - ▶ 남성과 여성 간 폐암발병률, 흡연율, 기대여명 등 차이가 있으며, 암 단계 이동과 관련된 저선량 흉부 CT촬영의 생존 이점이 2011년에 보고됨
- 본 연구는 폐암수술의 최근 경향을 조사하고, 이러한 경향에 관련된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함

### 2. 연구방법

- 건강보험청구자료에서 제공하는 수술코드 기반 폐암 수술 발생 자료와 2010~2014년 통계청 자료의 인구통계를 사용함
  - ▶ 폐암 수술코드는 01597, 01410-01424, 01431, 01432 기준임
- 폐암 수술관련 조 발생률, 연령별 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을 산출하고, 연간 퍼센트 변화(Annual percent change, APC)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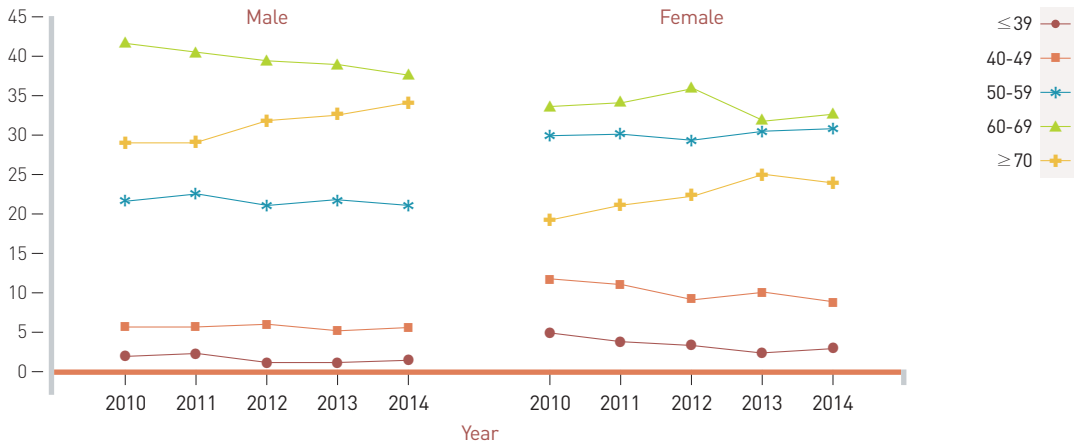
1) Park et al, Current Trends of Lung Cancer Surgery and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Changes in the Trends of Lung Cancer Surgery: An Analysis of the National Database from 2010 to 2014. Cancer Res Treat. 2017; 49(2):330-337

### 3. 연구결과

-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25,687명 환자가 25,921건의 폐암 수술을 받음
  - ▶ 환자 수는 2010년, 4,150명에서 2014년, 6,021명으로 45.1% 증가하고, 폐암 수술 조 발생률은 매년 유의하게 증가함(APC, 9.5)
  - ▶ 환자의 남녀 비는 2.1에서 1.6으로 감소함(APC, -6.3)
- 폐암 수술은 70세 이상에서 증가하였고, 성별로는 65세 이상에서 여성 비중이 증가하고 65세 미만에서 남성 비중이 감소함
- 서울지역의 수술 비중이 증가하였고, 수술 유형은 전폐 절제술이 감소하고, 분절 절제술과 폐엽 절제술 비중이 증가함
- 노인과 여성 환자의 폐암 수술 증가, 광범위한 폐 절제술 감소, 폐암 수술 중앙 집중화 등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폐암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그림 1] 폐암 수술의 성·연령별 발생률 추이

(단위: %)



[표 1] 수술 유형별 발생 건수 추이

(단위: 건,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분절절제술 (비중)	396 7.5	439 7.4	507 8.0	550 8.4	803 11.3
폐엽절제술 (비중)	4,187 79.0	4,680 79.3	5,169 81.6	5,363 81.5	5,622 79.4
양엽절제술 (비중)	391 7.4	456 7.7	388 6.1	390 5.9	399 5.6
전폐절제술 (비중)	326 6.2	326 5.5	271 4.3	281 4.3	254 3.6
합계 (비중)	5,300 100.0	5,901 100.0	6,335 100.0	6,584 100.0	7,078 100.0